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에 관한 자질 검사 이론적 접근

김 용 석

1. 머리말

본 논문은 소위 재귀사(reflexive)로 규정되고 있는 명사적 표현들(nominal expressions)이 장거리 결속(long distance binding)¹⁾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다양한 대응화 특성이 Chomsky(1992)의 최소 이론(minimalist theory)에서 제안되는 자질 검사 이론(feature-checking theory)하에서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재귀사(reflexive)로 규정되는 명사적 표현의 유형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주장을 제기해 왔다. 요컨대, 양동휘(1983, 1989, 1990, 1991), 김용석(1987, 1992), 문귀선(1992)등 그 동안 대부분 원-매개 변인 이론 학자들은 '자기'를 한국어의 재귀사로 취급해 왔고, 이정민(1973) 이익환(1978), Yoon(1988), Cole, Herman & Sung(1990), 이은지(1994) 등 여러 학자들은 '자신'을 한국어의 재귀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흥빈(1987)에서는 '자기'와 '자신' 둘다 재귀사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 자질상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자기'와 '자신'은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합 재귀사(complex reflexive) '그(너) 자신,' '자기 자신' 등도 한국어의 재귀사로 규정하고자 하며,³⁾ 먼저 아래 2절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의 재귀사들이 영어의 재귀사와 비교해 볼 때 장거리 결속시 저마다 상이한 대응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고찰해 보고, 그 다음 3절에서는 이러한 재귀사들의 대응화 특성이 Pica(1987)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응사 논리 형태 이동 가설(LF anaphor-movement hypothesis)과 최근 Chomsky(1992)의 최소 이론에서 제안되고 있는 자질 검사 이론에 입각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feature-checking theory for reflexives)'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포착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1. '장거리 결속'이란 재귀사들의 대응사(anaphors)가 절 경계(clausal boundary)를 넘어 그들의 선행사를 취하는 대응화 현상을 말한다.
2. 임흥빈(1987)에서는 '자기'는 [+의식성, +독자성, +고유성, +개별성]의 자질을 갖고, '자신'은 [-의식성, -독자성, +고유성, +개별성]의 자질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장석진(1986)에서는 '자신,' '자기,' '自-,' '자체,' '당신,' '저,' 등이 모두 재귀사의 일종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2.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

먼저, 아래 예문 (1)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한국어의 재귀사로 규정하고자 하는 명사적 표현들이 과연 대응사(anaphor)인가를 고려해 보자.

- (1) a. 영희가 자기/자신/자기 자신/그 자신/그녀를(을) 사랑한다.
 b. Mary_i loves herself/ⁱher_i.

위의 예문에서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 자신' 등은 모두 영어의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대명사와 달리 그들이 속해 있는 절내에서 결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결속되어야 하므로 Chomsky (1981)의 정의에 따라 모두 대응사로 규정될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의 재귀사들은 영어의 경우와 달리 그 대응화에 있어 항상 동일한 분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 (2) a. 철수가 [영희가 자기_i/자신_{NS}/자기 자신_{NS}/그 자신_{NS}을(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Tom_j hates himself_i.

요컨대, 위의 예문에 나타나는 대응화 현상은 한국어의 재귀사는 그 종류에 따라 다소간 지시 의존(referential dependency)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복합 대응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은 영어의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결속 원리 (A)을 준수하고 있으나, '자기'와 '자신'은 그들이 속한 절을 넘어 자유롭게 그들의 선행사를 취하는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4. 아래 (i)와 (ii)에서처럼 정의되는 Chomsky(1981)의 결속 원리(binding principles)와 지배 범주(governing category)에 따르면 대응사와 대명사는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게 되는데, 과연 위의 예문 (1)에서 재귀사로 규정하고자 하는 명사적 표현들은 모두 관련 대명사와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응사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로, Chomsky(1981)는 대응사에는 재귀사(reflexive), 상호사(reciprocal), 명사구 흔적(NP trace) 등이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 (A) 대응사는 그것의 지배 범주내에서 결속된다.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 대명사류는 그것의 지배 범주내에서 자유롭다.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 (ii) 만약, α 가 β 와 β 의 지배자와 β 에 접근 가능한 대주어를 포함하는 최소 범주 이면, α 는 β 의 지배 범주이다. (α is a governing category for β iff α is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β , a governor of β , a SUBJECT accessible to β .)

또한, 참고로 필자의 줄고(김용석 1992)에서는 '자기'가 대명사가 아니라 대응사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거는 자연히 또 다른 재귀사인 '자신'과 '그(녀) 자신,' '자기 자신' 등에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귀사가 종속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경우는 한국어의 복합 재귀사들도 영어의 재귀사와 달리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 (3) a. 철수가 [자기/자신/자기 자신/그 자신이(가) 영화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himself_i hates Tom.

또한, 영어의 재귀사의 경우도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종속절의 주어에 내포될 경우는 한국어의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 (4) a. 철수가 [자기/자신/자기 자신/그 자신의 그림이 할인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pictures of himself_i would be on sale.

이상 (1)-(4)의 예문을 통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국어의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 자신' 등은 모두 영어의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대응사로 규정될 수는 있으나, 영어의 재귀사는 Chomsky(1981, 1986)의 결속 원리 (A)를 준수하는 반면, 한국어의 재귀사는 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어의 재귀사와 동일한 대응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영어의 재귀사와는 상당히 다른 대응화 현상을 나타내며, 또한 한국어의 재귀사들 사이에도 상황에 따라 서로간 상이한 대응화 현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재귀사를 포함하는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파이-자질(ϕ -features)상 상이할 경우 나타난다고 보는 소위 장거리 결속의 차단 효과(blocking effect)⁵⁾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재귀사들이 어떠한 대응화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 보자.

- (5) a. 철수가 [영희가 [내/내가 자기_{i1/1k}/자신_{ni/ni1k}/자기 자신_{i1/1k}/그(녀) 자신_{i1/1k}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철수가 [내/내가 [영희가 자기_{i1/1k}/자신_{ni/ni1k}/자기 자신_{i1/1k}/그(녀) 자신_{i1/1k}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재귀사 결속의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Huang & Tang(1989), Cole, Herman & Sung(1990), 양동휘(1990, 1991) 등을 참고하시오.

참고로, Huang & Tang(1989)과 Cole, Herman & Sung(1990)에서는 중국어 재귀사 *ziji*에 대한 차단 효과를 다음 예문 (i)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법성의 대조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i) a. Zhangsan renwei [Lisi zhidao [Wangwu_k xihuan ziji_{i1/1k}]].
 'Zhangsan thinks that Lisi knows that Wangwu likes self.'
 b. Zhangsan renwei [wo zhidao [Wangwu_j xihuan ziji_{i1/1}]].
 'Zhangsan thinks that I know that Wangwu likes self.'
 c. Zhangsan renwei [Lisi zhidao [wo_k xihuan ziji_{i1/1k}]].
 'Zhangsan thinks that Lisi knows that I like self.'

- c. 내/내가 [철수가 [영희가 자기_i/자신_i/자기 자신_i을(를) /그(녀) 자신_i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위의 예문에 나타나는 대응화 현상은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경우는 차단 효과와 상관 없이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3인칭 명사구를 그들의 선행사로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이들과 달리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자기'와 '자신'의 경우를 보면, '자기'는 차단 효과와 상관 없이 3인칭 명사구만을 그의 선행사로 취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경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와 파이-지표가 다른 상위의 주어에 결코 장거리 결속이 될 수 없다는 소위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재귀사의 구조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또 다른 한국어의 재귀사의 두가지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복합 재귀사(complex reflexive)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자.

- (6) a. 철수가 [NP_i그 자기]_i/[NP_i자신 자기]_i/[NP_i그 자신]_i/[NP_i자기 자신]_i을(를) 사랑한다.
 b. 철수가 [내/내가 [그 자신]_i/[내/내 자신]_i]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복합 재귀사는 선행 구성소와 후행 구성소로 이루어지는데, 예문 (6a)는 '자신'은 선행 구성소로 오는 특정의 대명사와 결합해 복합 재귀사로 파생될 수 있으나 '자기'는 그러한 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고, 또한 (6b)의 경우는 '자신'의 복합 재귀사는 그 복합 재귀사의 인칭(person), 수(number), 성(gender) 등의 파이-자질(ϕ -features)의 특성에 따라 그 지시 의존이 결정됨을 보여 주고 있다.⁶⁾

또한, 재귀사의 강조 재귀사(emphatic reflexive)로서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예문을 살펴 보자.

6. 복합 재귀사를 만들 때는 구성소들간에 순서를 엄격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구성소들의 종류에도 일종의 제약이 따른다. 필자는 복합 재귀사들의 이러한 구성 현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다음 (i)와 같은 복합 재귀사 구성 제약을 설정하고자 한다.

- (i) 복합 재귀사의 두 구성소중 오직 선행 구성소만이 파이-자질에 대해 특정화 되어야 한다.
 (Only the preceding one of the two constituents in the complex reflexive must be specified in ϕ -features.)

요컨대, 위의 제약 (i)는 복합 재귀사의 구성소중 오직 선행 구성소만이 항상 특정의 파이-자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인데, '자기'는 '자신'과 달리 그 스스로 '3인칭 단수'의 파이-자질을 갖는다고 볼 때, 과연 위의 (6)의 예문에서 비문법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 자기'와 '자신 자기' 등은 모두 그 후행 구성소가 특정의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자신', '자기 자신', '내/내 자신' 등은 모두 그 선행 구성소가 특정 파이-자질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인데, 과연 이들은 문법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 (7) a. *나 자기/너 자기/그 자기/창수 자기가 왔다.
- b. 나 자신/너 자신/그 자신/창수 자신이 왔다.
- c. 창수 그 자신/창수 자기 자신이 왔다.
- d. He himself/John himself came here.

위의 예문 (7)은 '자기'는 '3인칭 비대명사 명사구'에 대해서만 강조 재귀사로 사용될 수 있고, 영어의 재귀사 *himself*와 한국어의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 등도 그것의 인칭과 수에 일치하는 명사구만을 강조할 수 있으나, '자신'은 인칭과 명사구의 종류에 불문하고 모든 명사구에 대해 강조 재귀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⁷⁾

3.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의 제안

필자는 먼저 앞절에서 살펴 본 장거리 결속과 관련하여 재귀사가 나타내는 다양한 대응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음 (8)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feature-checking theory of reflexives)'을 제안하고자 한다.

7. '그 자신'의 경우 단순 재귀사 '자신'이 대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구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즉, (7)의 예문에서와 같이 강조 재귀사로 사용되는 구성과 앞선 여러 예문에서와 같이 복합 재귀사를 이루는 구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음 예문 (i)의 '그+자신'은 해석상 애매성(ambiguity)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 (i) 철수가 [영희가 [그+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강조 재귀사의 경우는 강조받는 명사구와 재귀사 사이에 발음상 약간의 휴지(pause)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강조받는 명사구에 강세가 주어지는데, 복합 재귀사의 경우는 이러한 발음상의 현상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과연, 위의 예문 (i)에서 대명사 '그'와 재귀사 사이에 발음상 약간의 휴지를 두면서 '그'를 강하게 발음하면, '그+자신'은 주절의 주어인 '철수'를 지시하게 되고, 휴지를 두지 않고 '그'를 약하게 발음하면 종속절의 주어인 '영희'를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또한, 필자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나/내', '너/네'의 변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이에 따라 '나 자신', '너 자신'의 경우는 강조 재귀사로 '내 자신', '네 자신'은 복합 재귀사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다음 (ii)의 문장이 문장이 발견되기 때문에 (iii)의 문장도 존재하게 된다.

- (ii) 나는 나를 좋아하고, 너는 너를 좋아한다.
- (iii) a.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고, 너는 너 자신을 좋아한다. (강조 재귀사)
- b. 나는 내 자신을 좋아하고, 너는 내 자신을 좋아한다.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의 경우에도, 미약하기는 하지만, 강조 재귀사와 복합 재귀사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래 예문 (iv)의 [자기+자신]에서 '자기'와 '자신' 사이에 약간의 휴지를 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주절의 주어인 '철수'와 종속절의 주어인 '영희'를 모두 지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휴지를 두지 않으면 오직 종속절의 주어인 '영희'만을 지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iv) 철수가 [영희가 [자기+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옳다면, 복합 재귀사는 언제나 극부 결속을 이루어야 하며, 강조 재귀사는 언제나 그것이 강조하는 명사구의 지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8) 가. 모든 재귀사는 DP로서 [대명소+재귀소]([pronom+reflex])의 내면 구조로 분석되는 복합 재귀사이며, 그 선행 구성소인 대명소는 NP의 지정어(SPEC)에, 후행 구성소인 재귀소는 NP의 핵인 N에 나타난다. 따라서, 표면상 단순 재귀사는 [pro+재귀소]의 구성을 가지는 복합 재귀사로 분석된다.⁸⁾

나. 재귀사의 선행 구성소인 대명소와 후행 구성소인 재귀소는 각기 파이-자질(ϕ -feature)과 지시 자질(R-feature)을 내포하고, 이들 자질들은 각기 기능 범주 D의 어휘 자질(lexical feature)인 명사 구-자질(NP-feature)와 명사-자질(N-feature)에 의해 논리 형태(LF) 단위에서 자질 검사받아야 한다.⁹⁾

다. 재귀사 DP의 핵인 D의 어휘 자질들은 명시 통사부(overt syntax)에서 자질 변항(feature variable)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자질 변항은 논리 형태 단위에서 자질 검사에 앞서 그의 선행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선행사 확인 조건은 다음 (i)와 같다.

(i) 자질 변항은 그의 선행사와 일치하는 핵 범주의 검사 영역에 있으면 그의 선행사에 의해 확인된다.¹⁰⁾

8. 본 논문에서는 대용사의 선행 구성소인 대명소(pronom)는 성(gender), 수(number), 인칭(person) 등의 소위 파이-자질(ϕ -feature)의 집합체로서 대명사-탈락 매개 변인(pro-drop parameter)에 의해 분류되는 언어의 유형에 따라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대명사류(overt or covert pronominal)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자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복합 대용사의 선행 구성소로 지시-자질을 갖는 'John', 'Mary', '철수', '영희' 등이 나타날 수 없고, *himself, herself, yourself*, '그 자신', '그녀 자신', '네 자신' 등에서처럼 언어의 구분 없이 오직 대명사류만 나타나는 이유가 포착될 수 있으며, 또한 영어와 같이 pro가 나타나지 않는 비대명사-탈락 언어(non-pro-drop language)의 경우는 대용사의 선행 구성소의 위치에 항상 명시적 대명사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용사가 [*him+self*]에서처럼 표면상 복합 대용사로 나타나며, 한국어와 같이 pro가 나타날 수 있는 대명사-탈락 언어(pro-drop language)의 경우는 선행 구성소의 위치에 명시적 대명사와 비명시적 대명사가 모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용사가 [그+자신]처럼 표면상의 복합 대용사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pro+자신]처럼 표면상 단순 재귀사로 나타나기도 할 수 설명된다.

9. Chomsky(1992)에 의하면,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자질들은 그것에 관련되는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의 자질에 의해 검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모든 기능 범주의 자질이 방출(discharge)될 때 그 언어 표현이 합법적인 논리 형태 혹은 음운 형태의 구성소(legitimate LF or PF objects)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시-자질과 파이-자질이란 개념상 Huang & Tang(1989)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이들은 재귀사의 지표를 파이-지표(ϕ -index)와 지시-지표(R-index)로 나누고 이 지표들의 분포에 따라 재귀사를 단일 대용사(single anaphor)와 중복 대용사(double anaphor)로 나누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지시-자질과 파이-자질은 각기 관련 기능 범주 D의 명사구-자질(NP-feature)과 명사-자질(N-feature)에 의해 검사받음으로써 그 자질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재귀사의 대명소와 재귀소가 갖는 어휘 자질을 말한다. 이러한 (8)의 가정은 사실상 일치소(AGR)가 형태론적으로 명사구-자질과 동사-자질(V-feature)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질이 각기 주어 명사구의 파이-자질과 동사의 파이-자질을 검사한다는 Chomsky (1992)의 가정을 한경사(D)를 포함한 모든 기능 범주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10. Chomsky(1992)는 핵 범주의 검사 영역(checking domain)을 그 핵 범주의 최소 여분(minimal residue) 영역으로 정하고 있고, 참고로 아래 구조 (i)에서 핵 범주 X의 최소 여분 영역은 {UP, ZP, WP, H}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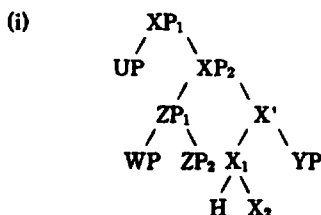
(The feature variable is identified by its antecedent only if it is in the checking domain(CD) of a head agreed with the antecedent.)

라. 따라서, 파이-자질과 지시-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재귀사의 대명소와 재귀소는 각기 논리 형태에서 DP의 지정어(SPEC)와 핵(D)으로 이동해야 하며, 자질 변항을 포함하는 D도 자질 확인을 받기 위해 논리 형태에서 특정의 이동을 해야 한다. 모든 이동의 경우 다음 (i)와 같이 정의되는 상대 최소 거리 이동 조건(relativized shortest movement condition)을 준수해야 한다.11)12)

(i) 이동하는 요소는 그 위치가 그것과 다른 유형의 범주가 아닌 이상 그것이 더 짧은 이동으로 갈수 있는 위치를 뛰어 넘어 이동할 수 없다.
(A moving element cannot skip a position it can reach by a shorter move unless the position is a different type of category from that of its category.)

마. 일치소(AGR)에 내포되는 모든 핵의 파이-자질은 자질 삼투가 일어 나며, 삼투의 결과 자질의 상충(feature conflict)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13)

바. 이상의 가정에 입각하면, 재귀사의 내면 구조와 논리 형태 변화는 다음의 보기에서와 같이 기술된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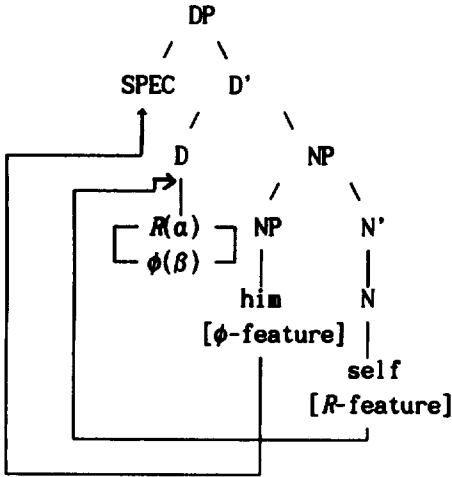
11. 여기서의 상대 최소 거리 이동 조건은 다음 (i)와 같은 Chomsky(1992)의 '최소 거리 이동 조건(shortest movement condition)'을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와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의 두 범주 유형에 따라 상대화한 것으로, 요컨대 기능 범주의 이동시는 또 다른 기능 범주를 뛰어 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어휘 범주의 이동시는 또 다른 어휘 범주를 뛰어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i) 이동하는 요소는 그것이 더 짧은 이동으로 갈수 있는 위치를 뛰어 넘어 이동할 수 없다.
(A moving element cannot skip a position it can reach by a shorter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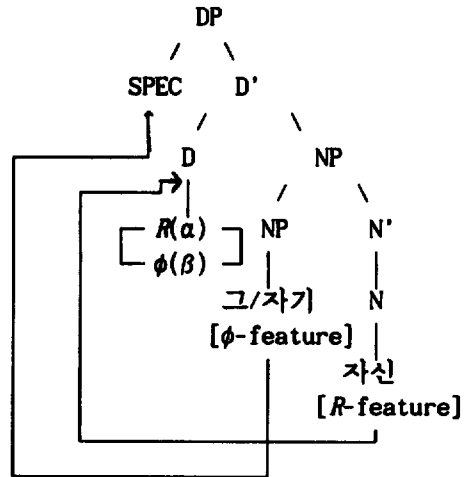
12. 강명운(1990), 양동휘(1991) 등에서도 재귀사를 기능 범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 이동(head movement)시 장벽을 형성하게 되는 잠재 선행사 지배자를 이들을 최대 투사 용어(m-command)하는 기능 범주의 핵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1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치소에서의 파이-자질 삼투는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차단 효과(blocking effect)를 설명하기 위하여 Cole, Herman & Sung(1990)에서 제안된 소위 '자질 삼투 가설'에 입각한 것인데, 양동휘(1991)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자질 삼투를 모든 일치 민감 요소(agreement sensitive element)에 적용되는 언어 보편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치 민감 요소는 언어에 따라 매개 변인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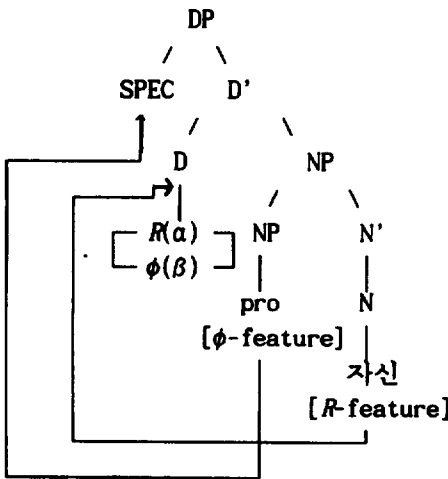
(i) himself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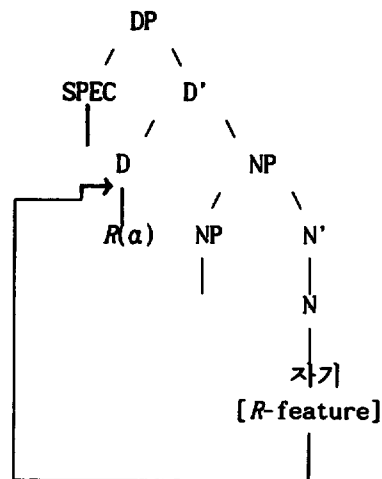
(ii) '그/자기 자신'의 경우



(iii) '자신'의 경우



(iv) '자기'의 경우



14. (iii)의 pro의 경우 그것의 파이-자질은 명시적 대명사의 경우와 달리 D에 의해 검사받지 않고 pro-화인 원리(pro-identification principle)에 의해 검사받을 수 있고, 또한 (iv)의 '자기'의 경우, (iii)의 '자신'의 경우와 달리 NP의 지정어 위치에 pro 대명사가 설정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자신'과 달리 형태론적으로 3인칭 단수, 유생격(singular 3rd person, animate)이란 일종의 파이-자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응사의 파이-자질을 결정해 줄 대명사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자기'는 복합 대응사인 '그 자기'가 불가능하나 '자신'의 경우는 복합 대응사인 '그 자신'이 가능하다는 것과 아래 예문 (i)에서와 같이 '자기'는 '자신'과 달리 언제나 '3인칭 단수, 유생격'만을 그의 선행사로 취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 (i) a. 철수/내/네/바람이(가) 자기를 극복하고 온순해졌다.
- b. 철수/내/네/바람이(가) 자신을 극복하고 온순해졌다.

그러면, 앞절에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고찰해 본 재귀사들의 다양한 장거리 결속 현상이 위의 (8)의 가정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본 논문의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 하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 보자.

먼저, 재귀사 장거리 결속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재귀사가 갖는 대응화 특성을 영어의 재귀사와 비교하여 살펴 보자. 이러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예문 (2)를 아래 (9)로 다시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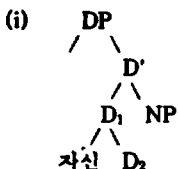
- (9) a. 철수가 [영희가 자기_i/자신_{ni}/자기 자신_{ni}/그 자신_{ni}을(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Tom_j hates himself_{ni}.

앞서 관찰한 바와 같이 위의 예문들이 나타내는 대응화 현상의 특징은 영어의 재귀사의 경우는 언제나 국부 결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재귀사의 유형에 따라 그 결속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경우는 영어의 *himself*와 같이 국부 결속을 이루어야 하나, 단순 대응사 '자기'와 '자신'은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먼저,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단순 재귀사 '자기'와 '자신'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들의 내면 구조상 각기 명사구의 핵에 설정되는 재귀소 '자기'와 '자신'은 논리 형태에서 지시-자질을 그들의 검사받기 위해서 (8나)의 가정에 따라 상위 기능 범주인 재귀사 DP의 핵 D의 위치로 핵 이동을 해야 하고, 이 D는 이들의 지시-자질을 검사하기 위해 (8다)의 가정에 따라 먼저 그의 자질 변향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D 또한 상위의 일치소(AGR) 위치로 핵 이동을 해야 하는데,¹⁵⁾ 이러한 이동이 진행될 경우 D와 D에 부착되어¹⁶⁾ D와 함께 이동하는 재귀소는 모두 특정의 파이-자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동 도중에 어떠한 일치소를 경유하더라도 (8마)의 가정에 의한 자질 상충(feature conflict)이 유발되지 않아 하위절의 일치소를 경유해 상위절의 일치소 위치까지 핵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D의 핵 이동시 만약 D가 상위절까지 이동하지 않고 종속절의 일치소에 머물러 이 일치소로부터 그의 자질 변향을

15. D가 AGR에 부착하여 이 AGR의 검사 영역(checking domain)에 들게 되면, AGR은 이미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에 의해 문장의 주어와 자질상 일치하게 되므로, 결국 D의 자질 변향들은 그것의 가능한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문장 주어의 지시-자질과 파이-자질에 의해 확인받게 된다.

16. 재귀소가 D로 핵 이동하여 D에 부착되어 있는 DP의 통사 구조는 다음 (i)에서와 같다.



자질 변향의 확인을 위한 핵 D의 이동은 D₂가 아니라 D₁에 적용된다.

확인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9a)의 예문에서 '자기'와 '자신'이 종속절의 주어 '영희'에게 결속되는 경우이고, 주절의 일치소에까지 이동하여 주절의 일치소로부터 자질 변항을 확인 받는 경우가 바로 주절의 주어 '철수'에게 결속되는 경우이다.

이제 (9)의 예문에서 장거리 결속이 불가능한 영어의 *himself* 와 한국어의 '자기 자신,' '그 자신' 등의 복합 재귀사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이들 재귀사의 특징은 모두 파이-자질을 갖는 명시적 대명소가 기저 구조에서 재귀사 DP에 내포되어 있는 NP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들 명시 대명소는 모두 명시적 파이-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8나)의 가정에 따라 재귀소가 논리 형태 단위에서 그의 지시-자질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재귀사의 상위 기능 범주 DP의 핵 D로 이동할 때 그들도 그들의 파이-자질을 검사받기 위해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그 뒤 이동한 재귀소와 대명소의 지시-자질과 파이-자질을 검사해야 하는 DP의 핵 D는 이들 자질의 검사를 위해서 먼저 그의 자질 변항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그 또한 상위의 일치소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D만의 핵 이동은 DP의 지정어 위치에서 이미 이동해 온 대명소를 이 지정어 위치에 홀로 남겨 두고 이동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D의 자질 변항의 확인후에도 DP의 지정어 위치에 홀로 남아 있는 대명소가 D의 검사 영역에 있지 못하여 그의 파이-자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 재귀사의 경우 재귀사의 기능 범주 DP의 핵과 지정어 위치에 각기 이동한 재귀소와 대명소의 자질 검사를 위한 D의 자질 변항 확인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DP 전체가 특정 일치소의 검사 영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¹⁷⁾ 이러한 DP의 이동은 더 이상 핵 이동(X^0 movement)이 아니라 구 이동(XP movement)이므로 아래 설명에서와 같이 구 이동을 통제하는 제약들의 결과로 결국 절을 넘어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영어의 재귀사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복합 재귀사들도 언제나 그가 속한 절내에서 국부 결속을 이루어야 한다. 요컨대, 재귀사 DP의 이동이 그가 속한 절을 넘어 상위의 절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DP는 기능 범주의 최대 투사이므로 (8라)의 가정에 따라 이동시 중간에 있는 모든 기능 범주의 최대 투사에 부착, 경유하면서 상위의 절 속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종속절 CP도 기능 범주의 최대 투사이므로 주절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종속절 CP를 경유해야 하고, 이 종속절 CP를 경유하기 위해 여기에 부착하게 되면, 바로 이 CP가 주절 동사의 목적어 논항이므로 Chomsky(1986b)의 논항 부착 금지 조건에 저촉이 되며,¹⁸⁾ 이러한 저촉

17. 자질 변항의 확인을 위해 DP가 이동할 경우에는 이 DP가 일치소구(AGRP)에 부착하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위치도 일치소(AGR)의 검사 영역내에 있게 되므로 이동한 DP가 문장의 주어와 자질상 일치하게 되는 일치소로부터 자질 변항의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질 변항의 확인은 곧 핵-투사 일치(head-projection agreement)에 의해 D로 투사되며, 이렇게 하여 자질 변항의 확인을 받은 D는 또 다시 그의 검사 영역내에 있는 재귀사의 대명소와 재귀소의 파이-자질과 지시-자질을 검사하게 되어 재귀사의 모든 자질 검사를 만족하게 된다.

18. Chomsky(1986b)는 다음 (i)와 같은 의 논항 부착 금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i) 부착은 오직 비논항의 최대 투사에만 가능하다.

을 피하기 위해 종속절 CP를 뛰어 넘어 상위의 기능 범주의 최대 투사로 직접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8리i)의 상대 최소 거리 이동 조건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재귀사 DP의 구 이동은 절을 넘어 이동할 수 없게 되어 복합 재귀사는 D의 핵 이동을 하는 단순 재귀사와 달리 장거리 결속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제안이 장거리 결속 현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재귀사를 핵 재귀사(X^0 -anaphor)와 구 재귀사(XP-anaphor)로 나누고 있는 Pica(1987)의 주장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¹⁹⁾

그러면, 앞절의 예문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귀사가 종속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복합 재귀사들까지도 영어의 재귀사와 달리 절을 넘어 결속되는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데, 이러한 대응화 현상이 본 논문의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 하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 보자. (10)의 예문으로 재인용한다.

- (10) a. 철수가 [자기/자신/자기 자신/그 자신,이(가) 영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himself_i hates Tom.

소위 위의 예문은 영어의 재귀사의 경우는 주격 섬 조건(nominative island condition: NIC)을 준수하나, 한국어의 경우는 주격 섬 조건이 준수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²⁰⁾ 영어의 경우는 (9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b)가 비문법적임이 간단히 포착된다. 요컨대, 복합 재귀사는 자질 검사를 위해 상위의 절내로 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언제나 (8리i)나 Chomsky(1986b)의 논항 부착 금지 조건의 위반이 초래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자기'와 '자신'은 단순 재귀사이므로 핵 이동을 통한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복합 재귀사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먼저 다음의 예문 (11)를 고려해 보자.

(Adjunction is possible only to a maximal projection that is a nonargument.)

19. Pica(1987)는 대용사를 핵 대용사(X^0 -anaphor)와 최대 투사 대용사(X^{max} -anaphor)로 나누고 핵 대용사는 논리 형태에서 핵 이동하나 최대 투사 대용사는 구 이동한다고 제안하고 핵 이동하는 핵 대용사가 최대 투사 대용사와 달리 장거리 결속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핵 대용사는 보문소 C가 탈출구(escape hatch)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 지금까지, Chomsky(1986a) 이후, Cole, Herman & Sung(1990), 양동휘(1991) 등 재귀사 논리 형태 이동 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이론에서는 이러한 주격 섬 조건의 현상을 공범주(ECP)로 포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요컨대, 이들 이론들은 대체로 영어의 시계절의 주어 위치는 고유 지배(proper government)가 되지 않으나, 한국어, 중국어 등의 시계절의 주어 위치는 고유 지배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재귀사의 이동후 주어 위치에 남는 흔적이 영어의 경우는 공범주 원리를 위반하게 되나, 한국어나 중국어 등에서는 이 흔적이 고유 지배됨으로써 공범주 원리를 준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외문사의 경우 나타내는 다음 (i)와 같은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까지도 외문사의 논리 형태 이동후 적용되는 공범주 원리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 (i) a. *Do you believe that *who* loves Mary?
 b. 창수는 누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 (11) a. 철수가 [pro_i 영화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pro_i hates Tom.

요컨대, 위의 예문에서는 한국어는 소위 대명사 탈락 언어(pro-drop language)이므로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자유로이 공대명사 pro가 나타나나 영어는 비대명사 탈락 언어(non-pro-drop language)이므로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공대명사 pro가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필자는 위의 (10)에 나타나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는 바로 이러한 예문 (11)에 나타나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앞선 예문 (7)을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영어와 한국어의 재귀사는 모두 그것의 인칭과 수에 맞는 명사구를 강조하는 소위 강조 재귀사(emphatic reflexive)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필자는 위의 (10)의 예문에 나타나는 재귀사들은 모두 강조 재귀사로 사용되는 경우로 해석하고자 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위의 예문 (10)은 다음 (12)과 같이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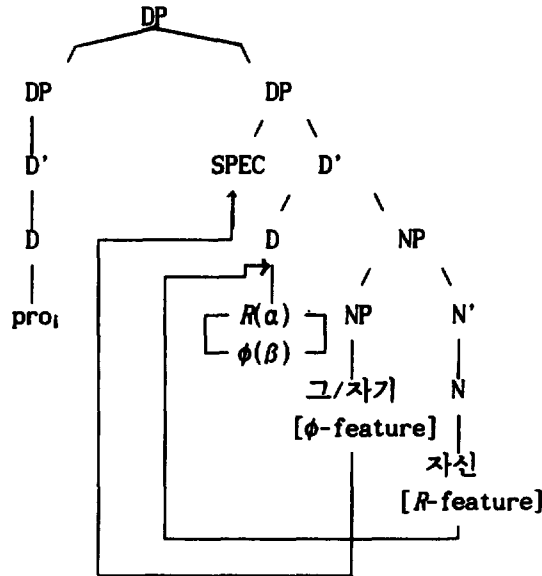
- (12) a. 철수가 [[pro_i [자기/자신/자기 자신/그 자신]] 영화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b. *John_i believes [that [pro_i [himself]] hates Tom].

(12)의 분석에 의하면, (10b)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이유가 비대명사 탈락 언어인 영어에서는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공대명사 pro가 나타날 수 없어 결국 이 위치에 나타나는 재귀사가 pro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고, 대명사 탈락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공대명사 pro가 설정될 수 있어 (10a)에서 단순 재귀사뿐만 아니라 복합 재귀사까지도 이 pro에 대한 강조 재귀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복합 재귀사가 영어의 재귀사와 달리 표면상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²¹⁾ 이 경우 강조 재귀사의 자질 검사는 강조 재귀사 구문의 구조 표현을 다음 (13)과 같이 가정하면,²²⁾ 강조 재귀사 DP는 모두 그의 선행사 pro의 검사 영역내에 있게 되므로 내부적 이동 이외에 아무런 이동 없이도 D의 자질 변항이 선행사 확인된다.

21. 한국어의 경우 주어의 위치에서 강조 재귀사로 사용되는 단순 재귀사 '자기'와 '자신'은 강조 재귀사가 아닌 핵 이동에 의해 장거리 결속이 되는 비강조 재귀사(non-emphatic reflexive)의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목적어 비대칭(subject-object asymmetry)이 Chomsky(1986a)의 주장처럼 공범주 원리에 기인하는 현상이라 보고,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주어-목적어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표면상 주어-목적어 비대칭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주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공대명사 pro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한국어의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재귀사를 모두 강조 재귀사로 해석해야 한다.

22. 아래 구조 표현에서 공대명사 pro를 D에 설정한 이유는 Postal(1966), Hale(1987), Baker(1989) 등에서 대명사를 기능 범주인 D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13)



이러한 본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영어의 재귀사의 경우 장거리 결속이 불가능한 이유는 영어의 재귀사는 구 이동을 하는 복합 재귀사일 뿐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결코 공대명사 *pro*가 설정될 수 없음에 기인하고, 한국어나 중국어에도 재귀사 장거리 결속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부분의 주어-목적어 불균형 현상이 이들 언어에서 주어의 위치에는 공대명사 *pro*가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으나 목적어의 위치에는 *pro*가 설정될 수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9a)와 (10a)를 비교해 보면,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이 이들 두 예문의 대조에서 주어-목적어 불균형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 재귀사들은 모두 구 이동을 하는 복합 재귀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목적어 위치에 *pro*가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9a)에서는 이들 재귀사가 (10a)의 경우와 달리 *pro*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로 사용될 수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영어의 재귀사가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앞선 (4b)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비교되는 한국어의 예문과 함께 (14)로 재인용한다.

- (14) a. John_i believes that pictures of himself_i would be on sale.
 b. 철수가 [자기/자신_i/자기 자신/그 자신_i의 그림이 할인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위의 예문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은 Pica(1987) 이후 재귀사 논리 형태 이동의 가설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이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의 문제점이 되어 왔다. 요컨대, 영어의 *himself*와 같은 구 재귀사(XP-anaphor)는 앞선

요컨대, 위의 구조 표현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14a)의 문장의 종속절의 주어 속에 나타나는 재귀사 DP가 논리 형태에서 그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 DP에 부착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이 위치는 바로 주어 DP의 핵인 D에 설정되고 있는 공대명사 *pro*의 검사 영역이 되므로 역시 재귀사 DP의 핵인 D의 자질 변항들이 그것의 선행사가 되는 *pro*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 결국 재귀사 내부의 자질 검사를 만족하게 되어 (14a)에서 재귀사 *himself*가 주절의 주어로서 지시할 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14b)의 한국어의 경우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14b)의 예문에 있어 '자기 자신'이나 '그 자신' 등의 복합 재귀사의 경우는 영어의 재귀사를 위한 위의 (15)의 분석과 꼭 같이 설명이 되고, 다만 핵 이동을 하는 '자기'와 '자신'의 경우는 이러한 분석 이외에 이들이 재귀소의 형태로 논리 형태에서 재귀사 DP의 핵 D에 이동한 후 이 D가 논리 형태에서 다시 상위의 기능 범주 D에 나타나는 비명시적 주어 *pro*에 핵 이동하여 부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질 변항을 갖는 재귀사의 핵 D가 *pro*의 검사 영역내에 있게 되어 재귀사 내부의 합법적인 자질 검사가 수행되는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²⁴⁾

이제, 앞선 (5)의 예문에서 관찰한 바 있는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을 차단하는 소위 차단 효과(blocking effect)가 본 논문의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하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 보자. (16)의 예문으로 재인용한다.

- (16) a. 철수가 [영희가 [내/내가 자기_{i1/ok}/자신_{o1/ok}/자기 자신_{i1/ok}
/그(녀) 자신_{i1/ok}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b. 철수가 [내/ 내가 [영희가 자기_{i1/ok}/자신_{o1/ok}/자기 자신_{i1/ok}
/그(녀) 자신_{i1/ok}을(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c. 내/내가 [철수가 [영희가 자기_{i1/ok}/자신_{o1/ok}/자기 자신_{i1/ok}
/그(녀) 자신_{i1/ok}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위의 예문에 나타나는 대응화 현상중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경우가 차단 효과와 상관 없이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의 파이-자질과 일치하는 명사구를 그들의 선행사로 취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복합 재귀사들은 언제나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절을 넘어 재귀사 DP가 이동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16a)에서 '자기 자신'과 '그(녀) 자신'의 경우 복합 재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가장 가까운 잠재적 국부 결속자(potential local binder)인 최하위절의 주어와 파이-자질상 상충이 될 때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과 앞선 논의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거리

24. 또한, 한국어의 경우는 (14b)에서 재귀사들이 명사 '그림'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명사 '그림'을 내포하는 명사구 NP를 보충어(complement)로 취하는 DP의 핵에 역시 (15)의 분석에서처럼 공대명사인 *pro*가 나타나고 이들 재귀사는 모두 이 *pro*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로 사용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결속이 가능한 '자기'와 '자신'의 경우, '자기'는 여전히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반면에 '자신'의 경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잠재적 극부 결속자인 최하위절의 주어와 파이-자질이 다른 상위절의 주어에 결코 장거리 결속이 될 수 없는 소위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는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녀) 자신'의 경우 이들은 무표적 상황(unmarked case)에서는 언제나 논리 형태에서 구 이동을 하는 복합 재귀사로 해석되나 잠재적 선행사인 가장 가까운 주어가 파이-자질상 그들과 일치하지 않는 유표적 상황(marked case)에서는 복합 재귀사로 해석되지 않고, [자기 [자신]], [그 [자신]]에서처럼 '자신'이 각기 '자기'와 '그'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 구조로 해석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16a)의 '자기 자신'과 '그(녀) 자신'의 지시는 이들 속에 내포되는 '자신'이 강조 재귀사로 해석되므로 각기 강조를 받는 '자기'와 '그'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종속절을 넘어 상위절의 주어에 자유롭게 결속될 수 있음이 설명된다. 이제 위에서 제기한 후자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자면,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자기'의 장거리 결속 현상은 위의 예문 (9)의 경우에서와 꼭 같이 설명되지만,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자신'의 경우는 그 설명이 약간 복잡해진다. 요컨대, 재귀사 '자신'이 '자기'와 다른 특징은 '자신'은 '자기'와 달리 형태론적으로 파이-지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형태론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경우는 '자기'와 달리 (8biii)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처럼 재귀사의 내면 구조상 그의 파이-지표를 결정해 줄 비명시적 대명소 pro를 요구하게 되고, 이 pro도 역시 파이-지표를 갖는 대명소이므로 그의 파이-지표를 검사받기 위해 재귀사가 상위 DP의 핵으로 이동할 때 함께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자신'의 이러한 내면 구조적 이동은 '복합 재귀사'의 경우와 꼭 같으나, 복합 재귀사와 달리 D의 자질 변항을 확인받을 경우 대명소 pro를 포함하는 그의 최대 루사 DP 전체가 이동하지 않고 대명소 pro를 DP의 지정어 위치에 남겨 놓고 D만 상위의 기능 범주인 일치소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복합 재귀사와 다르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경우 유사한 내면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합 재귀사와 달리 논리 형태에서 구 이동을 하지 않고 핵 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재귀사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 온 비명시적 대명소 pro가, 복합 재귀사에 설정되는 명시적 대명소와 달리, 그의 파이-지표에 대한 자질 검사가 기능 범주의 핵인 D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Huang(1982, 1984, 1989)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제 규칙에 기초한 다음 (17)과 같은 자질 통제 원리(feature-control principle)에 의해서도 그 자질 검사가 실시됨에 기인하는 것이라 가정한다.²⁵⁾

25. (17)의 정의에서 파이-자질은, Huang & Tang(1989)에서 재귀사와 관련되는 파이-자질은 인칭(person), 성(gender), 수(number) 중 인칭과 수에 국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인칭과 수에 국한하고, '가장 가까운(closest)'의 개념과 '명사적 요소'의 개념은 각기 다음 (i)와 (ii)으로 정의된다.

(i) 만약 A가 B를 성분 통제하고 C는 B를 성분 통제하지 않으면, A가 C보다 B에 더 가깝다. 또한, A와 C가 모두 B를 성분 통제하는 경우라면, A는 B와 같은 결속 속에 나타나나 C는 그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A가 C보다 더 적은 수의 절경계로 B와 떨어져 있다면, A가 C보다 B에 더 가깝다.

- (17) 비명시적 대명소 *pro*의 파이-자질은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에 의해 검사된다. (the ϕ -feature of the implicit pronom *pro* is checked by the closest nominal element.)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 재귀사 '자신'의 대명소로서 재귀사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pro*는 그에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인 그를 포함하는 최하위절의 주어로부터 파이-자질을 검사받게 되고, 대명소 *pro*에 대한 이러한 자질 검사는 다시 DP내에서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D의 명사구-자질 변항인 파이-자질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뒤 다시 상위의 일치소로 그의 명사-자질 변항을 확인받기 위하여 D의 이동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 D가 상위의 일치소에 부착되면 이미 *pro*로부터 확인받은 그의 파이-자질이 (8마)의 가정에 따라 상위 일치소로 삼루되고, 이 때 일치소의 파이-자질과 삼루되는 D의 파이-자질간에 상충이 일어나면 비문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예문 (16)의 경우를 살펴 보면, (16a)에서는 재귀사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되는 대명소 *pro*의 파이-자질이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인 최하위 종속절의 주어에 의해 1인칭/2인칭으로, (16b, c)에서는 3인칭으로 각기 검사받게 되고, 이러한 자질 검사의 결과로 결국 재귀사 DP의 핵인 D 또한 대명소 *pro*와 동일한 파이-자질을 갖게 되는데, 그 뒤 그의 명사구-자질을 확인받은 D가 상위의 일치소로 연속적 순환 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을 할 경우, (16a, b, c)에서 다 같이 최하위 종속절의 일치소내에서는 자질 상충이 유발되지 않으나, (16a, b)의 경우는 중간절에서, (16c)의 경우는 최상위절에서 자질 상충이 유발된다. 따라서, (16)의 예문에서 '자신'의 핵 이동은 오직 자질 상충이 유발되기 전단계의 일치소에까지만 가능하므로, (16a, b)에서는 오직 최하위절의 주어에게만, (16c)에서는 최하위절과 중간절의 주어에게까지 결속되는 소위 차단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26)

(A is closer to B than C is if A c-commands B but C does not c-command B. For two nodes A and C, both of which c-command B, A is closer to B than C is if A but not C occurs within the same clause as B, or if A is separated from B by fewer clause boundaries than C is.)

- (ii) 명사적 요소란 한정사구(DP)(혹은 NP)와 일치소(AGR)를 말한다.
(The nominal element refers to DP(or NP) and AGR.)

참고로, Chomsky & Lasnik(1991)에서도 PRO의 경우 그것의 격(Case)은 주어-일치소에게 검사를 받으며, 그것의 파이-자질은 통계 이론에 의해 선행사로부터 검사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안하는 PRO의 파이-자질 검사가 본 논문 (17)의 제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7)의 자질 통계 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Huang(1984)의 통계 규칙은 다음 (iii)과 같다.

- (iii) 공대명사류를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와 동지표화하라.
(Coindex an empty pronominal with the closest nominal element.)

26. '자신'에 대한 이러한 차단 효과는 아래 예문 (i)에서와 같이 '자신'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위치에 나타날 경우는 상실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 (i) 철수가 [내/내가 [자신_i이 영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4. 제고되어야 할 문제점에 관하여: 통제 구문과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그러면, 이제 한국어 재귀사들이 통제 구문과 관련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내는 대용화 특성이 본 논문의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 하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 보자.

(18) 철수가 [철수가 [pro_{WS}/자기_{WS}/자신_{WS}/자기 자신_{WS}/그 자신_{WS}이(가)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믿는다.

(19) 철수가 영화를 [pro_i 자기_{WS}/자신_{WS}/자기 자신_{WS}/그(녀) 자신_{WS}을 (를) 사랑하라고] 설득했다.

위의 예문 (18)은 상위의 주어에게 통제되는 위치에서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재귀사들이 모두 영주어(null subject) pro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상위의 주어에게 통제됨을 보여 주고 있고, (19)의 예문은 통제되는 영주어 pro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재귀사에 대해 일종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18)-(19)의 예문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대용화 현상은 '자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논문의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 하에서 쉽게 설명된다. 즉, (18)에서의 '자기'는 D의 연속적 순환 핵 이동을 통해 중간절의 주어-일치소는 물론이고 주절의 주어-일치소까지 이동해 갈 수 있으므로 그의 선행사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고, 또한 복합 재귀사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경우도 앞선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복합 재귀사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날 때는 절의 경계를 넘어 장거리 결속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이들이 비명시적 주어 pro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로 분석될 수 있음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18)의 최하위절의 주어 위치는 Huang(1982, 1984, 1989)에서 제안하고 있는 pro의 통제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위치로서 이 자리에 나타나는 pro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에 의해 통제되므로 중간절의 주어인 '철수'에 의해 통제되고, 따라서 (18)의 예문에서 이 pro를 강조하는 강조 재귀사로 분석되는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은 언제나 그들이 강조하는 pro의 지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거리 결속시 중간절의 주어인 '철수'만을 그들의 선행사로 취하게 된다. 또한, (19)의 경우에도 '자기'는 D의 연속적 순환 이동의 결과로 상위의 어떠한 일치소에도 자유롭게 부착

요컨대, '자신'이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16)의 경우와 비교하여 위의 (i)에서 차단 효과가 상실되는 이유는 일종의 주어-목적어 불균형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앞선 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귀사의 대용화와 관련되는 주어-목적어 불균형 현상은 대부분 대명사-탈락 언어의 공대명사 pro의 설정이 주어 위치에만 가능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의 (i)의 구문이 다음 (ii)에서처럼 분석된다면, '자신'은 강조 재귀사로 해석됨으로 그 지시는 pro가 갖는 지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pro는 상위의 주어에게 자유로이 결속될 수 있으므로 위의 (i)의 예문에서 '자신'의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이 설명된다.

(ii) 철수가 [내/내가 [[pro_i [자신]]이 영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될 수 있으므로 주절의 주어 '철수'나 목적어 '영희'뿐만 아니라 '영희'에게 통제되는 종속절의 pro 주어까지도 그의 선행사로 취할 수 있고, (19)의 예문에서 복합 재귀사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은,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처럼 문장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복합 재귀사는 그가 속한 문장의 주어-일치소구에만 구 이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속한 문장의 pro 주어만을 그들의 선행사로 취함이 설명된다.

그러나, (18)-(19)의 예문에 나타나는 '자신'은 단순 대응사로서 '자기'와 마찬가지로 재귀사 DP의 핵인 D가 연속적 순환 핵 이동을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장에서 '자신'은 '자기'보다도 오히려 구 이동을 하는 복합 재귀사인 '자기 자신'과 '그 자신' 등과 동일한 지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자신'의 대응화 특성이 바로 (8바iii)의 제안에 따라 재귀사 '자신'의 내면 구조상 DP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난다고 가정되고 있는 비명시적 대응소 pro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요컨대, (18)의 예문에서 '자신'은 강조 재귀사와 비강조 재귀사 두 경우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강조 재귀사인 경우는 '자신'이 포함되는 주어의 구조가 [DP pro [DP pro [D_i 자신_i] [D]] [NP t_i [N' t_i]]]]처럼 기술되고, 비강조 재귀사인 경우는 그 구조가 [DP pro [D_i 자신_i] [D]] [NP t_i [N' t_i]]]]처럼 기술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주어의 내면 구조 속에 pro가 나타나고, (18)의 예문에서 재귀사가 나타나고 있는 최하위 종속절의 주어 위치는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인 중간절의 주어 '창수'에게 통제되는 위치이므로 pro들은 '창수'를 그의 선행사로 취하게 되어 결국 '자신'은 언제나 중간절의 주어 '창수'만을 그의 선행사로 취하게 된다.²⁷⁾ 한편, (19)의 예문은 종속절의 주어인 pro가 주절의 목적어 '영희'에게 의무적 통제되는 통제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통제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질은 오직 지시-자질만으로 한정된다고 가정하면, (19)의 pro는 "영희"로부터 지시-자질만 부여받게 되고, 이 경우 (19)의 예문에서 '자신'을 제외한 재귀사들은 모두 그들의 핵 D의 지시 변항만의 확인을 요구하는 재귀사들이므로 오직 지시-자질만 가지는 pro에 의해서도 그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pro를 그들의 선행사로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경우에도 내면 구조상 나타나는 비명시적 대명소 pro가 (17)의 자질 통제 원리에 의해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로부터 자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가까운 명사적 요소가 종속절 주어인 pro이거나 이 pro와 자질상 일치하는 종속절의 주어-일치소구지만 이들은 모두 지시-자질만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비명시적 대명소 pro는 이들로부터 지시-자질의 부여를 통한 간접적인 파이-자질의 확인을 받게 되고,²⁸⁾ 다시

27. 엄격히 말하면, 강조 재귀사의 경우는 [DP pro [DP pro [D_i 자신_i] [D]] [NP t_i [N' t_i]]]]의 구조에서 선행하는 pro가 중간절의 '창수'에게 통제되고 후행하는 재귀사의 대명소 pro는 이 pro로부터 자질 검사만을 받는 것이고, 비강조 재귀사의 경우는 [DP pro [D_i 자신_i] [D]] [NP t_i [N' t_i]]]]의 구조에서 재귀사의 비명시적 대명소인 pro가 직접 중간절의 주어 '창수'로부터 통제되므로 그의 자질을 검사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의무적 통제 구문에서 통제받는 재귀사의 비명시적 대명소 pro는 그의 파이-자질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제하는 선행사로부터 지시-자질까지도 부여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대명소 pro는 재귀사 DP의 핵인 D의 자질 변항까지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확인하게 되므로 (19)의 '자신'에서 자질 변항의 확인을 위한 D의 핵 이동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지시-자질을 부여받은 '자신'의 비명시적 대명소 *pro*는 지정어-핵 일치에 의해 재귀사 DP의 핵인 D의 자질-변항을 모두 확인하게 되어 D의 핵 이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귀사의 자질 검사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19)의 재귀사 '자신'은 오직 종속 절의 주어 *pro*만을 그의 선행사로 취하게 되는 일종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재귀사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독자적인 장거리 결속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결속 현상은 사실상 Chomsky(1986a)와 Pica(1987) 이후 원리-매개 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하에서 크게 대두되어 왔던 '대용사 논리 형태 이동 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대용화 이론들으로써는 도저히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은 대부분 재귀사의 유형을 핵 재귀사와 구 재귀사로 양분함으로써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의 문제를 설명하는데는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한국어에서와 같이 재귀사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들 재귀사가 나타내는 장거리 결속 현상이 다양한 언어에서는 단순히 핵 재귀사와 구 재귀사의 구분으로서만 이들의 다양한 결속 현상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Chomsky(1992)의 최소 이론에서 제안되고 있는 소위 자질 검사 이론을 재귀사의 대용화 이론에 도입하고, Abney(1986, 1987) 이후 일반화된 명사구에 대한 DP 분석에 기초하여 재귀사의 내면 구조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본 논문 (8)의 가설로 이루어지는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이란 새로운 재귀사 대용화 이론을 제안하고, 이 이론이 그동안 기존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한국어의 다양한 재귀사 장거리 결속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증해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이 더욱 설명력 있는 이론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이 이론이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다른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까지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장거리 결속 현상 이외에 주어 지향성(subject-orientation) 문제등을 포함하는 재귀사의 다양한 대용화 현상과 또한 상호사(reciprocal)의 대용화 현상까지도 '재귀사 자질 검사 이론'의 개념적 확대나 일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8. 필자는 지시-자질은 내면적으로 파이-자질을 포함하나, 파이-자질은 지시-자질을 내포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아래 예문 (i)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지시-자질을 갖는 지시 표현(R-expression)은 파이-자질을 갖는 대명사에 대해 그 자질의 검사나 그 확인까지도 수행하지만, 대명사의 파이-자질은 지시 표현의 지시-자질에 대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i) a. I met Tom_i when his_i father died a week ago.
b. ?I met him_i when Tom_i's father died a week ago.

참 고 문 헌

- 강명윤. 1990. On Reflexives. 『생성문법연구』 1, 한국생성문법연구회.
- 김용석. 1987. '자기'의 지시 의론에 관하여: 결속이론 대 연결이론, 『언어』 제 12 권, 319-346. 한국언어학회.
- . 1988. '자기'의 대응화에 관한 연결이론적 고찰. 『논문집』 제 12 집, 223-255, 한성대학교.
- . 1990. *Caki* as an Unmarked Anaphor. Orally Presented at the 9th Colloquium,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 . 1991. On Topicaliza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0*, Proceedings of the Kyung H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 1992. '자기'의 대응화에 관하여. 『생성문법연구』 2.2. 한국생성문법연구회.
- . 1994. 한국어의 공대명사 현상에 관하여. 『생성문법연구』 4.1. 한국생성문법연구회.
- . 1994. On Subject-Orientedness of Korean Reflexives. 『송곡 양동휘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예정)
- . 1994. 한국어의 영목적어 현상에 관하여. ms., 한성대학교.
- . 1994. 한국어의 재귀사론 소고. ms., 한성대학교.
- 문귀선. 1992. Principle A of the Binding Theory and the Korean Anaphor *Caki*. 『인재논총』 8.1. 인제대학교.
- 양동휘. 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a. ms., MIT.
- . 1989. On Anaphor Movement. *NELS 19*, 435-452.
- . 1990. 대응화의 논리 형태. 『성곡논총』 21.
- . 1991. Korean Anaphora and Universal Grammar.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이은지. 1994. Locality of Anaphoric Dependence and SUBJECT. 『생성문법연구』 4.2. 한국생성문법연구회. (예정)
- 이익환. 1978. Pronominal anaphora in Korean. 『어학연구』 14.1.
- 이정민.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범문사.
- . 1988. Issues in Korean Anaphora. *ICKL*. 339-358.
- 임흥빈.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장석진. 1986. 조용의 답화 기능. 『한글』 194.
- Abney, S. 1986. Functional Elements and Licensing. Paper presenting at GLOW.
- Abne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Noun Phrase*, Ph.D. dissertation, MIT.
- Aoun, J. 1986. *Generalized Binding Theory: The Syntax and Logical Form of*

- Wh-interrogatives*, Foris, Dordrecht.
- Baker, M. 1989.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6.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_____.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_____.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_____.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
- Chomsky, N. and H.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ms., MIT.
- Cole, P., G. Herman and L.-M. Sung. 1990. Principles and Parameters of Long Distance Reflexives. *Linguistic Inquiry* 21.
- Hale, K. 1987. Incorporation and the Irish Syntactic Verb Forms. ms., MIT.
- Huang, C.-T. J.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 _____.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5, 531-574.
- _____. 1989. Pro-Drop in Chinese: A General Control Theory. *The Null Subject Parameter*. ed. by O. Jaeggli and K. J. Safir, SNLLT.
- Huang, C.-T. J. and J. Tang. 1989. The Logical Nature of the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NELS* 19.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12. 1-23.
- Pica, P. 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NELS* 17. 483-499.
- Postal, P. 1966. On So-called 'Pronouns' in English. in D. Reibel and S.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6,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Yoon, J. 1988. Single and Compound Reflexives in Korean. m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Abstract

The present paper claims that the various types of long-distance binding phenomena of reflexives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feature-checking theory under Chomsky's(1992) minimalist theory.

As a result from this study, it comes to light that all kinds of Korean reflexives are analyzed as DP rather than NP, hence tak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complex reflexives and consisting of a pronominal element, overtly or covertly realized, and a reflexive element, as analogous to English reflexives: for example, *him+self*.

Based on this observation, it is argu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long-distance binding among Korean reflexives follow from their different types of LF movement determined for their feature-checking by the economical way: X^0 -movement and XP-movement, and that the analysis of emphatic reflexive explains why XP-reflexives in Korean, unlike in English, also reveal the long-distance binding property in some relevant cases, contrary to Pica's(1987) prediction.